

전국팔도의 책, 고창서 만난다

고창한국지역도서전 내일 개막

전국 각지의 출판물과 도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고창한국지역도서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책의 공간 책마를 해리는 이제 지역의 기록과 지역책의 생태계가 꿈틀거리는 지역 출판의 현장으로 변신중이다. 지역출판인들이 모여 '지역 책, 마을에 산다. 온 마을이 책'이라고 외친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군 단위에선 최초로 열리는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은 '지역에 산다, 책에 산다'를 주제로 9일부터 12일까지 고창군 해리면 책마를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도서전 주제 '지역에 산다, 책에 산다'는 살림의 지역생태계, 살아나는 지역 출판생태계를 화두로 삼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는 데 바탕은 책의 살림, 출판생태계의 건강한 살림이라는 메시지다.

'온 나라 지역책에 산다'는 전국 지역출판사에 출간한 책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특히 고창, 순천, 곡성, 칠곡, 부여, 제주 '할매들'의 삶의 기록들을 모아 전시하는 '할매작가 전시시대전'도 눈길을 끈다. 교사들과 청소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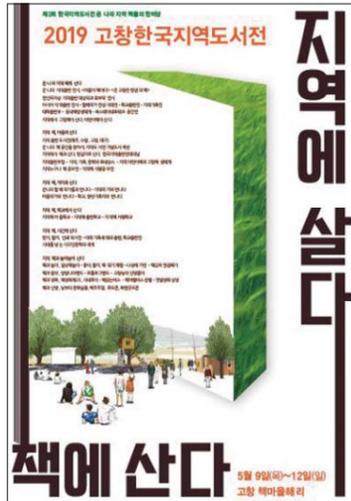
교 밖 친구들)들이 엮어 내어놓은 출판전시 '학교출판전'과 '지역에도 어린이책, 그림책이 산다'는 지역과 지역출판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역 책과 놀며 산다'는 편하게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진행된다. 인형극, 책 만들기 등을 하는 '어린이 책놀이마당'과 '한지 활자 출판체험', 책 관련 영화를 보고 즐기는 '책영화제', '갯벌 영화상영'도 준비되고 있다. 고창군 거리 곳곳에는 책 관련 수공예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북앤 굿즈'도 열린다.

또 한국지역출판대상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 한국지역출판인의 밤(한국지역출판연대 총회), 작가초청 강연회 등 지역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국 지역출판인들의 모임인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는 수도권 중심, 자본과 시장에 치여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지역출판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2017년 제주를 시작으로, 수원 등에서 지역도서전을 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한국지역도서전은 인문학 도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지역사회와 전국의 지역출판 문화가 소통하는 중요한 행사



가 될 것이다"며 "축제 기간 농촌마을 전체가 도서관이 되는 신선한 경험에 빠져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노애락'

정읍시립미술관 가족사랑 기획전시, 오는 14일부터 42일간 열려

특별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을 통해 전국구 미술관으로 떠오른 정읍시립미술관이 14일부터 '소소한 희노애락'전을 연다.

시립미술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 가족사랑 기획전시회를 연다. '소소한 희노애락'전은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들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로 구성해 관객의 참여로 진행되는 기획 전시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은행 소장품 40여 점과 국내 현대 작가 작품 20여 점 전시된다. 1전시실에서는 1인칭 시점으로 희노

애락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3전시실과 중정의 공간에서는 '날은 코끼리' 작품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서양화와 한국화, 사진 작업의 평면작품과 다양하고 참여 가능한 입체·설치작품, 미디어·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063-330-641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0일까지 3개월에 걸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은 총 관람객 3만2589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다녀가 지난 2015년 10월 개관 이후 가장 높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 공연 사진.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 대구컬러폴 페스티벌서 대상 수상

최근 열린 2019 대구컬러폴페스티벌에 부안군을 대표하여 참가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 &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코치 정성문)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구컬러폴 페스티벌은 '형형색색 자유의 합성'이라는 주제로 대구 중심가 국제보상사에서 86개팀 총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7개국 16개팀 349명의 해외의 경쟁한 팀들의 경

연 속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3천만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은 2016년부터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사례 선정, 2017년 천안흥타령 거리퍼레이드 대상, 2018년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실력 있는 단체로서 부안군민들에게 해마다 호두까기 인형, 판타스틱 엘리스 등 판타지댄스컬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구컬러폴 페스티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부안군 나누미농장학교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포스댄스컴퍼니는 부안군 상주단체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예술로 부안을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전주 영화 후반 제작 지원사업' 작품 공모

전주영화제작소는 '2019 전주 영화 후반 제작 지원사업'의 2분기 작품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들 기관은 색 보정, 디지털 마스터링과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등 보유시설을 활용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후반 제작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7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촬영 정비 1편, 후반 제작 11편, DCP 2편 등 총 14편을 선정, 지원했다.

영화계 상영 및 수상과 개봉을 통해 꺾뚝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올해도 총 4분기 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마스터링 부분도 단편영화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은 전국에서 영화·영상 연출 감독 또는 제작사에서 준비 중인 작품 및 후반 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단편영화, 저예산 예술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이다. 2분기에는 총 4편을 선정(색 보정·사운드 3편, DCP 1편)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1개 작품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 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전주영화제작소 전주 영화 후반 제작 지원 사업 담당(063-282-1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